

# 전북대, 한옥인력 교육 업그레이드

문화재기능인협회와 협회 소속 인간문화재 중심 한옥기능 실습 교육 담당 해의 한옥수출사업도 동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옥인력 교육을 더욱 공고히 했다.

협약식에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박재병 부단장과 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 한진석 부이사장, 인간문화재 소속장 소병진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전북대 한옥학과와 한옥기능인양성 등 교육프로그램에 협회 소속 인간문화재 중심이 돼 실습 교육을 담당하며, 학과 발전을 위한 실습 재료 지원 및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고의 한옥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수업과 연구를 진행, 특히 전북대가 추진하는 해외 한옥수출사업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한옥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한옥인으로서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

다"며 "전북대 한옥학도가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실습 재료와 발전기금 등을 통해 물질상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박재병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한옥학과 운영에 문화재기능인협회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의

'바우하우스'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기능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가 1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인간문화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계 대표적 단체다. /장은성 기자

## '한반도 통일, 정말 가능할까?'

전북대,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

"국제적 조건 등 충족시 통일 이뤄낼 수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달 30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초청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현인택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정말 가능할까?'를 주제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다양한 국내외적

요소를 고려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 전 장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국제적 조건, 당사국간 관계, 통일 주도국의 역량 3가지 모두 충족했을 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모델로 한반도의 통일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며, 국제 정세를 파악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통일 역량을 키워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전 장관은 "통일국의 가치는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간이 다스 걸리더라도 평화 보장된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 이상적이며,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체제 변화가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전북대 김종식 학생처장은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역사의 근간이 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통일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초청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북대, 대학원생 위한 공공기관 취업박람회 개최

14개 기관 · 2차전지 기업 참여 1대 1 맞춤 상담... 최신 취업 동향 · 정보 취득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대학원생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서울교통공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퍼캡텍(주), 성일하이텍(주), 에스이머티리얼즈(주) 등 14개 공공기관 및 2차전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대 내국인 대학원생뿐 아니라 석·박사과정에는 54개국 802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해 공공기관 및 우수기업의 최신 취업 동향과 정보를 취득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이날 11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기업별로 1대 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또 2차전지 기업 3곳에서 기업의 채용절차와 기준 등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대학원은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2회씩 대학원생들의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대학원생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취업 희망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한 공공기관의 부스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고학력의 내·외국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기업 간 구직 및 채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송철구 대학원장(연구부총장)은 "대

학원생 및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공공기관에 관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박람회를 열고 있다"며 "글로벌 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외국인 졸업생들의 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저탄소 논물관리 선도모델 구축

전북대 김종기 교수팀

전북대학교 김종기 교수팀(농경제유통학부)이 국가 통계값보다 월등히 높은 저탄소 논물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고창군 흥덕면 여곡·송암 단지의 저탄소 논물관리 실적이 국가통계값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물 관리의 국가통계값은 상시담수가 벼의 생육기간 대비 13%, 일주일 간 물을 빼는 기간이 7.8%다. 그러나 전북대 연구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흥덕 지역의 경우 상시담수가 0%였고, 2주일 간 물을 빼는 기간은 국가통계값보다 27.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물을 빼고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메탄가스 발생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지 농민들과 GPS 사진을 이용해 논물 관리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 시범사업 초반 농민들은 논물관리 일자 작성과 증빙용 사진 확보를 주저했다. 지속적인 논물 관리 교육과 관리 및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연구팀은 농민들에게 논물관리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5명의 농민에게는 논 필지 주소와 촬영 시간이 담긴 GPS 사진을 촬영하게 해 능동적인 논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일 전북도교육청 시청각실에서 열린 12월 직원조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화·혁신 멈추지 말아야"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대전환 큰 걸음 내디딘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발맞춰 새롭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일 시청각실에서 열린 12월 직원조회에서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우리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전북교육 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다"면서 "올해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데 대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올해 초 세웠던 10대 핵심과제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해서 잘 마무리 해 달라"며 "내년 1월 18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발맞춰 더 특별한 전북교육, 더 새롭게 더 힘차게 펼쳐나가기"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환경에 초점, 4일 개통... 교육 정책 홍보 공간 마련 등

전북도교육청은 모바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오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바일 화면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개편된 부분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직관적인 구성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 공간 마련 △사용자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각종 편의성 향상 등이다.

특히 △학교건강증진교육센터 △학교안전공제회 △국립교류수업지원 △전북학력지원센터 △재정공개 홈페이지 등이 신설됐다.



4일 개통되는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홈페이지 개편은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 및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홈페이지 사용자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업무담당자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일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강당에서 교육공무원 2023년 교육공무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북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원 채용 및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육공무원 채용 절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공직채용에 관

한 규칙'을 안내했다. 또한 노동관련 법령, 단체협약서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관리 규정'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공무원 채용 및 노무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등을 숙지해 2024년 신규 채용 업무 추진 시 공정하고 청렴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마이로컬톤 창업캠프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김상진 단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를 간 창업에 관심 있는 내내 7개 대학교 학생과 진안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마이로컬톤 창업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단에 따르면 저출산,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위기를 청년들의 시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행사는 진안군일자리센터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한재영 학생(4조)은 '지역 생산품을 활용한 로컬 커뮤니티 레스토랑'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소방안전공학과 김도연, 소하진 학생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